

# 부산불교聯, “문화·국가 발전 위해 노력”

## 1월 6일, 코모도 호텔에서 신년하례회 개최

부산불교를 이끌고 있는 사부대중이 2016년 신년하례회를 개최, '전통문화계승·복지사회·정법 홍보'를 위해 정진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했다.

(사)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1월 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불교계는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부산시 발전에 이바지 할 것과 전통문화계승·복지사회·정법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전통문화사업으로는 △부산연등축제 △팔관회 △부산불교합창제 △송구영신한마당 △동지팔죽 축제를 계획, 전통불교문화 계승과 발전에 노력할 방침이다. 사회공헌사업은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기원 활동'을 통한 지역 발전 이바지 △사회복지 및 청소년문화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철세택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포교사업은 △회원사찰 권익보호와 친목도모 및 교편수호 △봉축·성도제일·열반제일·출가제일 4대 명절 기념행사 △사명

대사주모사업 및 학술세미나 △부산불교계 제1기 108인회 교육 △부산불교100년사 편찬 등을 통해 화합의 부산불교를 지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의 불교계 주요 성과로 '부산 시민 80만 명이 함께한 연등축제'와 처음 개최한 '제1회 송구영신한마당' 축제를 꼽고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에 키워 나갈 것을 계획했다.

### 전통문화계승·정법 홍보 다짐

###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활동

### “한국불교 중심으로 우뚝 서길”

### 부산불교승가聯, 8일 신년하례

신년하례회는 사부대중이 함께 새해 첫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부산불교 2015년 주요성과보고 △2016년 부산불교 주요사업보고 △봉행사 △축사 △신년사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 영상을 통해 부산항 복합 재개발 지역 내 건립할 '부산BBS 신사옥 건립'에 대한 설명



부산불교연합회는 2016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도 이어졌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올해도 부산에서는 다양한 불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며 “승가는 부산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재가는 부산불교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부산불교가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 고문 정각 스님, 계전 스님, 혜총 스님, 지현 스님, 부산 16개 구군불교연합회 회장 스님 및 회원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해동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

산교육감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사)부산불교승가연합회(회장 조연)는 1월 8일 코모도 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조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천주교 왕수영 신부와 부산 6대종교 지도자 10명이 함께해 종교화합과 발전을 위한 축사 및 건배제기도 진행했다.

회장 조연 스님은 “승가연합회가 당간을 세운 지 세 번째 해를 맞이한다”며 “이제 부처님의 법을 여법하게 세우며 세계가 불국토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 삼광사, 약사여래 개금불사 점안 법회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1월 10일 약사전에서 약사여래 개금불사 회향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훈공 스님을 증명법주로, 주지 무원 스님의 증명으로 열린 이번 점안식은 1부 △경과 보고 △개회사 △범어 △관음정진 2부 점안법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금불사를 진행한 약사여래는 2014년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 145호 지정된 석조여래좌상이다. 석조여래좌상은 기본적인 도상 및 옷주름이 17~18세기의 양식을 따르며 조선 후기 부산·경남 지역 석조 불상의 대표적인 재료인 불석으로 제작됐다. 또한 보존 상태가 아주 좋고 조선 후기 석조여래좌상의 일반적인 특징과 미의식이 반영돼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삼광사는 “아픈 증상을 돌보는 약사여래 부처님의 마음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2016년 개금불사를 한 정성으로 중생들을 위해 활동하는 새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 “부산 BBS, 북항 신사옥 건립 추진”

### 불도 부산 상징화, 건물 외형 ‘승掌’

동북아시아의 교류허브를 표방한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에 BBS불교부산방송의 20년 숙원사업인 신사옥이 건립된다. BBS불교부산방송 사장 수불 스님은 구립 30일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해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 IT·영상·전시지구 내 부지 5천957㎡(약 1천 805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부지 매입가는 총 210억원으로 밝혀졌다.

신사옥을 건립할 북항재개발지역은 원도심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해양관광도시, 해륙교통의 관문도시,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 국제도시를 목표로 부산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역이다. 교통의 요충지로 KTX부산역이 인접해 있으며 우리나라 동·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에 위치한 해양관광 거점 지역이다. 앞으로 부산BBS는 IT·영상·전시지구 내 인근에 새롭게 들어서는 부산일보사와 부산 MBC 사옥과 함께 ‘부산항 복합 시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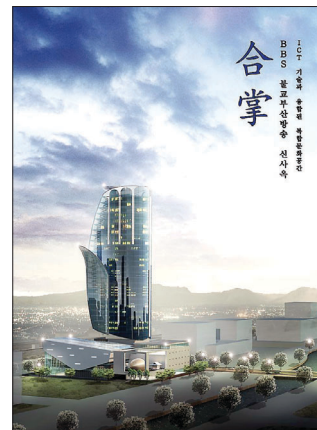
부산BBS는 올해 상반기 중 건축면적 3천574㎡(약 1천80평), 연면적 5만6천 700㎡(약 1만7천800평), 최대 40층 규모로 건축 설계용역을 의뢰한다. 신사옥 외형은 한국불교의 중심인 불도 부산을 상징화한 ‘합장(合掌)’을 이미지화 했다. 신사옥 내부에는 영상스튜디오가 처음으로 제작되며, 현재 2개인 라디오스튜디오가 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사

### 구립 30일, 약 1805평 토지계약

### 매입가 210억원... 2020년 착공

육이 조성되면 방송국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주요 기관들도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신사옥 건축 공사는 2020년 3월 착공해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부산BBS는 “설계 용역이 끝나고 IT·영상·전시지구 내 기반시설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착공 시기는 당겨질 수 있다”며 “특히 부산BBS 신사옥이



불교부산방송 신사옥 조감도

건립되면 방송국뿐만 아니라, 미디어테마파크와 ICT센터를 비롯해 국제센터, 불교계의 주요 기관들이 입주해 부산불교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전했다.

부산BBS는 지난 1995년 개국 이후 지난 20여 년간 신사옥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개국 21주년을 맞는 오는 2월 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BBS 신사옥 건립 선포식’을 연다. 하성미 기자

## 현불연, 14일부터 <대승기신론> 강좌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양정로터리 불교회관서

부산 경남 불교학자들의 연구모임 현대불교연구원(원장 무관)이 2016년 새로운 특강 강좌 ‘원효 스님의 눈으로 대승기신론을 읽다’를 개강한다.

1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부산 양정로터리 불교회관 5층 현대불교연구원에서 진행된다. 교재는 <대승기신론>,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별기>이며 권소용 부산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 내용은 △대승기신론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및 별기의 소개 △대승기신론의 구조와 의미-조론(造論)의 동기, 기신(起信)의 주제와 대상 △마음의 구조-심지여(心眞如)와 심생멸(心生滅) △무명에서 깨달음으로-법신(法身)과 중생신(衆生身), 본각(本覺)과 시각(始覺), 불각(不

覺)과 각(覺) △미혹과 깨달음의 상관관계-종자(種子)와 훈습(薰習), 염법(染法)의 훈습과 정법(淨法)의 훈습, 체·상·용(體·相·用) △미혹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2종의 사된 견해, 5종의 인아견(人我見)과 법아견(法我見) △소승의 수행과 대승의 수행, 구사론과 기신론의 비교 △신심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신심의 수행(1), 4선과 5문 △수행의 결과 △권수이익분(權修利益分) △유통분(流通分) 등이다.

현불연은 “대승기신론은 유심론의 입장에서 인간존재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마음의 분석이 상세하다”며 “마음이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마음의 입체적 분석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같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010-9166-2539

하성미 기자



함안 군법당 안국사가 부대 이전 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행사 송구영신법회가 구립 31일 봉행됐다.

## 함안 안국사, 신년 맞아 새 출발 다짐

### 매주 일요일, 오전·오후 정기법회 계획

39사단 총무부대 이전으로 인해 일방적 철거 통보로 한동안 몸살을 겪었던 함안 군법당 안국사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안국사는 새롭게 이전한 함안 39사단에서 첫 송구영신 법회 및 제야의 타종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정기법회를 열어 군포교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구립 31일 안국사 첫 공식행사로 진행된 법회에는 신영 군법사를 비롯해 사단장, 부대 간부 및 장병, 지역민까지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를 마친 장병들은 소원지를 작성하며 기념촬영 및 떡국 공양으로 2016년의 새 출발을 맞이했다.

39사단은 앞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장병들과 지역신도들이 함께하는 일요일 정기 법회, 오후에는 신교대 훈련병 법회를 정기적으로 봉행할 방침이다.

신영 법사는 “경상남도에는 모든 장병들이 이곳 39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간다. 신교대 법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포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상남도 전역에 위치한 예하 부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연계해 지역포교에도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혔다.

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은 “올해 총무부대의 무운장구와 건승을 기원하며 행복한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기틀을 마련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 Buddhists of The World King (사)세계불교법왕청

#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정기 각료회의 소집공고



종교법인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법왕청.com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 人權委員會,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 국제붓다봉사단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각료 회의 소집 공고

정기 각료 회의 2015년 12월 이전에 임명되었던 모든 각료는 모두 참석해 주시므로 새해 주요 안건 심의와 정책 안건 검토를 할 것이며 그동안 각료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회의를 계속 불참하는 각료들은 1월 정기총회에서 각료로서의 인성, 인격, 인품, 참여도, 출석률 등을 심의 의결후 재정비 차원의 임명장 회수 및 명단과 사진을 기재하여 해임사실을 신문지상에 공지할 것임.

■ 일시 : 2016년 1월 2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미안마문화원

세계불교도들의 법왕 우꾸마라 사야도 보좌 기획관리 장로 목탁 합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 세계불교 포교와 봉사로 지구촌 구석구석 인간방생, 중생교화에 헌신할 인재를 기다립니다. 인간다운 인간 승려다운 승려이면 대환영합니다.